

고대 중국어 중간구문의 의미 기능 분석

박 향 린*

〈目 次〉

I. 들어가는 말	III. 고대 중국어 중간구문의 의미 기능
II. 중간구문의 개념 및 특성	1. ‘可/足’구문
1. 중간구문의 개념	2. ‘難/易’구문
2. 중간구문의 특성	IV. 나오는 말

I. 들어가는 말

본 연구의 목적은 고대 중국어에 출현하는 중간구문(middle construction)의 의미 기능을 분석하는 것이다.¹⁾ 중간구문은 ‘This book reads easily’와 같이 타동사의 내재논항인 목적어가 주어 자리에 출현하여 피동문과 유사하지만 능동문의 동사 형태를 취하는 것으로 능동문과 피동문의 특징을 모두 갖는 중간자적 위치에 속한다고 하여 중간구문으로 부른다. 중간구문은 타동사의 외재논항인 행위자가 표면구조에 나타나지 않고 암묵적으로 존재하며 사태의 발생이 수동자 주어의 내재적 속성에 달려있다는 특징이 있다. 즉 ‘이 책이 쉽게 읽히는 것’은 행위자 개개인의 능력보다는 책 자체가 갖고 있는 어떤 속성 때문으로 본다.

* 경북대학교 인문학술원 연구초빙교수

1) 중국어사의 시기 구분은 학자들마다 이견이 있으나 고대-중고-근대-현대 중국어시기를 나눌 때 대체적으로 고대 중국어는 동한이전 시기를 가리킨다.

중국어학계에서도 2000년대 초반 이후 영어의 중간구문과 비교 대조하여 ‘好’, ‘起來’, ‘可’, ‘難’ 등과 결합된 구문의 중간구문 여부를 검증하고 그 통사 의미적 특성을 분석하는 연구가 많이 진행되었다.²⁾ 대표적으로 曹宏(2004, 2005), 古川裕(2005), 何文忠(2005, 2007), 夏曉蓉(2005), 何元建(2010), 이지현(2008, 2011, 2012)의 연구가 주목할 만하다. 이후에도 蔡淑美·張新華(2015), 홍소연·최규발(2018), 胡旭輝(2019), 董成如(2021), 양류(2021) 등 지속적으로 현대 중국어 중간구문의 통사 및 의미 기능을 탐구하였다. 이 밖에도 장염·김기석(2019), 양류(2022), 趙成新·舒琳(2023) 등은 언어유형론, 인지언어학 등의 각도에서 영어, 한국어와 현대 중국어 중간구문을 비교 대조하였다.

이에 비해 고대 중국어 중간구문에 대한 인식은 여전히 저조하며 그에 대한 분석 역시 상대적으로 부족하였다. 張定·丁海燕(2009), 胡麗珍·雷冬平(2013), 李炎燕(2021) 등 주로 현대 중국어 중간구문에 나타나는 표지인 ‘好’, ‘起來’ 등의 역사적 변천과정을 분석하였다. 이에 본고는 중간구문에 대한 기존 논의를 바탕으로 고대 중국어 중간구문의 범주와 유형을 확정 분류하고 그 의미 기능에 대해 고찰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중국어 어법사에서 피동문과 능동문 사이에서 범주적으로 교차되는 특수한 구문에 대한 자리매김이 가능할 것이다.

II. 중간구문의 개념 및 특성

1. 중간구문의 개념

중간구문은 중동태 혹은 중간태(middle voice)라고 부르는 구문의 일종

2) 김윤정(2004), 김혜경(2011) 등 현대 중국어의 결과보어문(VR) 역시 중간구문의 범주에 포함시키는 학자들도 있지만 본고에서는 (2-2)절의 특성을 갖춘 좁은 의미의 구문만을 중간구문으로 간주한다.

이다. 중동태는 능동태(active voice), 피동태(passive voice)와 더불어 태의 하위 유형에 속하는데 능동태와 피동태는 서로 대응되는 범주로 쉽게 구분되지만 중동태의 개념은 다소 모호하여 능동태와 피동태의 양극단 사이에 위치하며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진 연속체로 구성된다고 본다.³⁾ Kemmer (1993)는 인구어(Indo-European Languages)를 바탕으로 중동태의 개념을 최초로 체계적으로 정립하였는데 그는 주어의 행위가 그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재귀(reflexive)를 중동태의 핵심으로 간주하였다. 재귀는 주어가 행위자이자 수동자가 되는 자기-피영향성(self-affectedness)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능동과 피동의 중간적 위치를 점한다. 인구어에서는 재귀 접사나 재귀대명사를 활용한 재귀 용법이 활발하게 나타나는데 주로 ‘씻다’, ‘면도하다’, ‘목욕하다’와 같은 몸단장이나 비병진적 이동, 신체 자세변화 등의 동사에 쓰인다.

하지만 최근 언어유형론에서는 재귀용법은 재귀태로 따로 분류하고 자동적 사건과 피동적 중동만을 중간태 구문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다. 이들 구문은 Kemmer(1993)가 중동태의 주변적 현상으로 간주하던 것으로 자동 혹은 자발적 사건은 반사동(anti-causative) 혹은 능격구문(ergative construction)으로 불리고 피동적 중동(passive middle)은 가능피동(potential passive) 혹은 본고에서 논의하는 중간구문을 가리킨다.

- (1) a. Mary stabbed herself.
메리는 자기를 찔렀다.
b. The window broke.
창문이 부서졌다.
c. The branches breaks easily.
그 가지는 쉽게 부서진다.

3) 능동태는 통사 층위상 행위자가 주어가 되고 수동자가 목적어가 되고 피동태는 수동자가 주어가 되고 행위주가 사격보어로 실현되는데 피동태는 능동태의 목적어가 주어자리로 상승시키고 행위자 주어는 사격보어의 자리로 강등 혹은 삭제시킴으로서 도출된다. 인구어에서는 이 과정에서 굴절이나 어순 및 격의 변화가 생긴다.

예문(1-a)는 주어 'Mary'가 행위자이자 동작의 영향을 받는 수동자로서 재귀대명사 'herself'가 쓰인 내적 재귀 용법에 해당된다. 예문(1-b)는 'broke'와 같은 자타양용동사가 사용되는 반사동 혹은 능격 구문으로 자타양용동사는 'He broke the window'처럼 행위자 주어와 수동자 목적어를 갖는 타동사로 쓰일 수도 있고 예문(1-b)처럼 수동자 목적어인 'the window'만을 주어로 선택할 수도 있다. 행위자가 주어인 경우 수동자에 영향을 미치는 사역 의미의 타동사로 쓰이고 수동자가 문두로 도치되어 주어가 되면 기동 의미(anti-causative/inchoative construction)의 자동사가 된다. 예문(1-c)는 중간구문으로 수동자 주어의 속성이 사건 발생의 원인으로 제공된다.

자발적 사건과 중간구문은 둘 다 타동사의 목적어가 주어로 출현하지만 자발적 사건의 주어가 기동자 역할을 하며 행위자가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 것과 달리 중간구문은 표면구조에 실현되지는 않지만 사태를 일으키는 행위자가 암묵적으로 존재한다.⁴⁾ 때문에 많은 언어에서 중간구문이 좀 더 피동문에 가까워 비전형적인 피동의 일종으로 간주하기도 한다.⁵⁾ 결론적으로 본고에서 논의하는 중간구문은 중동태에 속하는 여러 유형의 문장에서 가장 범위가 좁은 극히 일부의 특별한 구문만을 지칭한다.⁶⁾

2. 중간구문의 특성

박상수(1996)는 Keyser & Roeper(1984), Fagan(1988) 등을 바탕으로

- 4) 이지현(2011:160)은 능격구문은 행위자 자체가 원래 존재하지 않아 어떠한 외부적인 작용이 없으며 주어는 단지 힘의 에너지가 전달되는 기점으로 작용하는 반면 중간구문은 의미상 피동과 마찬가지로 행위자 함축되어 있지만 아무런 의지가 없는 피동 주어와는 달리 사건의 원인자 역할을 한다고 보았다.
- 5) Haspelmath(1987:35)는 의미지도를 바탕으로 인구어에서 재귀사가 재귀-내적 재귀-반사동-가능피동-피동으로 파생 확장되는 과정을 고찰하였다. 이를 통해 재귀와 피동사이에 다양한 스펙트럼을 엿볼 수 있다.
- 6) 인구어 및 중국어 중간구문의 범주 및 도출과정에 대해서는 이지현(2008, 2012)을 참고할 수 있다.

영어 중간구문의 통사 의미 구조의 특징으로 비명시적 행위자 논항, 비사건적, 부사어의 제약, 현재시제의 선택 및 가능성 의미와의 공기 등을 제시하였다. 본장에서는 그의 논의를 토대로 한국어 및 현대 중국어 중간구문의 통사 의미 구조와 비교 고찰해보고자 한다.⁷⁾ 중국어와 영어의 중간구문은 동사에 특별한 형태 표시가 없고 한국어의 경우 형태적 피동 접미사인 ‘-이, -히, -리, -기’가 사용된다. 때문에 한국어 중간구문은 일찍부터 비전형적 피동의 하위 범주로 간주되었다.⁸⁾ 이들 언어는 비록 언어 유형은 서로 달라 중간구문에 나타나는 동사의 형태는 다르지만 의미상 서로 부합하는 측면을 가진다.

1) 암묵적 행위자 논항의 존재

영어의 중간구문은 통사 의미론적으로 존재를 상정하지만 음성적으로 실현되지 않는 행위자 논항이 반드시 존재한다. 그리고 이런 잠재적 행위자는 다수의 일반인을 의미하는 총칭적(generic)이라는 특징이 있다. 때문에 아래 예문(1-a)처럼 행위자 없이 사태의 발생을 의미하는 ‘저절로’와 같은 부사어와 결합할 수 없고 예문(1-b)처럼 특정 행위자 의미역과도 공기하지 못한다.

(1) a. The bread slices easily (*all by itself).

이 빵은 쉽게 잘린다.

b. The baggage transfers efficiently (*by the porter).

그 수하물은 효율적으로 옮겨진다.

현대 중국어 ‘好+V’ 형식 역시 중간구문으로 동작을 일으키는 행위자는 통사적으로 실현되지 않을 뿐 문장에 암묵적으로 존재한다. 이런 비명시적

7) 본장의 영어 중간구문의 예문 및 설명은 박상수(1996:79~81)를 참고하였다.

8) 한국어 피동문의 범주와 유형에 대해서는 남수경(2011), 백정화(2019)을 참고할 수 있다.

행위자는 총칭적이라는 때문에 예문(2-a)처럼 ‘저절로’ 의미를 갖는 ‘不由自主地’와 같은 부사어는 함께 출현할 수 없고 예문(2-b)처럼 특정 행위자가 표면구조에 나타날 수 없다.

- (2) a. 這種花瓶(*不由自主地)好碎。
이런 꽃병은 잘 깨진다.
b. 這個麵包(*我們)很好吃。
이 빵은 아주 맛있다.

이지현(2011:157)은 예문(2-b)처럼 먹는 행위를 하는 실질적 행위자는 암묵적으로 존재하며 총칭적이라는 의미 특성을 갖기 때문에 대상에게 미치는 실질적인 영향력은 약화되고 대신 수동자 주어의 속성이 강조된다고 보았다. 즉 빵의 속성이 중요하지 행위자가 중요하지 않다는 점에서 능동문과 차이가 있고 피동 행위를 일으키는 행위주를 삽입할 수 없다는 점에서 피동문과 차이가 있다고 보았다.

한국어 중간구문 역시 예문(3-a)처럼 숨겨진 행위자를 상정하기 때문에 ‘저절로’라는 부사어가 포함될 수 없고 전형적인 피동문과 달리 행위자를 따로 표시할 수 없다.

- (3) a. 그 나무는 (*저절로) 잘 잘린다.
b. ()는 그 나무를 잘 자른다.

백정화(2019:106)는 예문(3-a)와 같은 중간구문은 사건 발생의 원인이 나무의 속성에 달려 있지만 예문(3-b)처럼 행위자를 명시하여 대응하는 능동문으로 바꾸면 특정 행위자가 다른 사람보다 나무 자르는 행위를 손쉽게 한다는 점을 강조하여 사건의 원인이 행위자의 능력에 달려 있어 서로 다른 의미를 전달한다고 보았다. 때문에 그녀는 한국어의 중간구문을 피동작주 즉 수동자 주어의 속성으로 인해 사건이 발생하는 속성 피동

(property passive)으로 불렀다.

2) 비사건성

영어의 중간구문은 특정 시각에 일어난 특정한 사건을 기술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사실을 묘사하는 명제 내용을 서술한다는 점에서 비사건성(non-eventiveness) 즉 상태성(stativity)을 드러낸다. 徐盛桓(2002:437-439)도 영어의 중간구문은 동태적인 측면보다는 정태적인 경향을 표현하려는 발화자의 의도를 반영한다고 보았다. 이로 인해 영어의 중간구문은 행동의 변화나 결과를 예상하는 명령문 혹은 진행상에 쓰이지 않는다.

- | | |
|--|---|
| (4) a. bureaucrat bribe easily.
관리들은 쉽게 매수된다. | * Bribe easily, bureaucrat!
쉽게 매수되세요, 관리들! |
| b. The walls paint easily.
그 벽은 쉽게 발린다. | * the walls are painting.
그 벽은 발리는 중이다. |

또한 주로 ‘frighten’, ‘shock’, ‘read’ 등 인간의 감정, 심리와 관련된 정신적 상태변화나 ‘melt’, ‘break’, ‘paint’ 등 사물의 물리적 상태 변화를 나타내는 동사와 함께 출현한다.⁹⁾

이처럼 영어의 중간구문은 비사건성 명제 내용의 상태 변화를 나타내므로 내적 시간 개념인 상뿐만 아니라, 외적 시간 개념인 시제 선택에 있어서도 제약을 받는다. 과거나 미래시제는 불가하며 오직 능동형식의 현재시제로만 표현된다. 이는 현대 중국어 및 한국어 중간구문에도 부합한다.

9) 양류(2021:251)는 현대 중국어 ‘好看’, ‘好聽’, ‘好聞’, ‘好懂’, ‘好記’ 등과 같이 인지나 감정, 지각과 관련된 일음절 동사와 결합하는 ‘好’는 이미 어휘화되어 접사와 유사하며 조동사로 쓰이는 ‘好’보다 더 높은 문법화 정도를 보인다고 보았다. 이를 통해 중국어 중간구문 역시 감정, 심리 동사와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가짐을 엿볼 수 있다.

- (5) a. 這個麵包很好切。 *很好切, 這個麵包!
 이 빵은 잘 잘린다. *잘 잘려라! 이 빵은
 b. 這個麵包(*正在)很好切。 (*昨天)這本書很好讀。
 *이 빵은 잘 썰리는 중이다. (*어제) 이 책은 잘 읽힌다.

이밖에 중간구문은 가능성이나 능력을 나타내는 조동사와 결합하는 경우가 흔하다. 이는 중간구문이 추상적이고 주관적인 심리 인지 내용을 표현하기 때문이다.

- (6) a. This fabric can be laundered well.
 이 옷감은 다림질이 잘 된다.
 b. some dishes won't wash easily.
 어떤 식기들은 잘 안 씻긴다.

전부미(2013:931)는 중간구문은 내재논항이 암묵적인 가능성 양상사를 가지고 있는 성향문으로 분석하면서 행동의 용이성이나 속도, 수행 가능성을 나타내는 부사가 필요하나 강세나 부정어 혹은 가능성 양상사로 부사를 대체될 수도 있다고 보았다. 현대 중국어는 ‘好+V’구문을 비롯해 동사 앞에 붙는 여러 양상사가 이 기능을 대체한다.

현대 중국어에서 ‘好+V’형식은 ‘好’ 자체가 ‘-하기 쉽다’라는 가능성의 인지 의미를 나타내며 영어 중간구문에서 부사 ‘easily’ 등에 상응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때문에 이지현(2011:168)은 ‘好+V’형식은 상태나 속성보다는 가능성에 더 큰 의미 비중을 둔다고 보았다. 張定·丁海燕(2009:32)에 따르면 ‘好+V’ 형식은 唐代 문헌에서 이미 ‘好’ 뒤에 목적어가 주어 위치에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으며 ‘可’, ‘難’ 등의 조동사와 호응되기도 한다.

- (7) a. 獨步石可履, 孤吟藤好攀。(唐代《塞山詩》)
 혼자 걸으니 돌도 밟을 만하고 혼자 읊조리니 등나무도 오를 만하네.

- b. 從來貧好斷, 賤好斷, 只有壽數難斷。(明代 《警世通言》)
 종래로 가난함은 예측하기 쉽고 비천함도 단언하기 쉬우나 수명은
 예측하기 어렵다.

연재훈(2011:136)은 한국어 피동문은 가능을 표시하는 부가어를 따로 동반하지 않지만 가능성의 의미가 나타나는 경우가 많은데 이들은 영어로 번역할 경우 피동 의미보다는 가능 의미가 더 자연스럽다고 보았다. 이런 피동문은 중간구문의 속성을 갖는다.

- (8) a. 이것은 연해서 잘 씹힌다.
 b. 이 문이 잘 열리니?
 c. 이 책은 비교적 잘 읽힌다.

3) 부사어의 존재

영어 중간구문은 동사 단독으로는 수동자 주어의 상태를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서술어를 수식하는 부사어가 반드시 존재한다. 이때 의미지향과 관련하여 제약을 받는데 수동자 주어 지향의 양태 부사어(manner adverbial)와 결합하고 비명시된 행위자 지향의 의도 부사어(intentional adverbial)와는 결합할 수 없다. 何文忠(2005:9) 역시 영어의 중간구문은 ‘deliberately’, ‘carefully’ 처럼 행위자를 지향하는 자주성 부사와 함께 출현할 수 없고 비자주성(non-volition) 의미 특징을 지니는 부사만이 출현한다고 보았다.

- (9) a. * The cup breaks deliberately.
 그 컵은 (고의로) 부서진다.
 b. * Polyester cleans carefully.
 폴리에스테르는 (조심스럽게) 세탁된다.

이지현(2011:153-154)은 중간구문이 행위자의 능동적인 의지보다는 수동자 주어의 모종의 특성으로 인해 사태가 야기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수동자 주어의 원인자(causer)로서의 역할을 강조한다고 보았다. 한국어와 현대 중국어 중간구문 역시 행위자를 지향하는 부사들과는 결합할 수 없다.

- (10) a. 이 빵은 쉽게 잘린다.
 *이 빵은 (조심스럽게) 잘린다.
 b. 這種機操作起來很簡單。
 이런 기계는 조작하기가 간단하다.
 *這種機操作起來很專心。(何文忠 2007:8)
 이런 기계는 조작하기가 열심이다.

지금까지 논의를 종합해보면 영어, 현대 중국어 및 한국어의 중간구문은 통사적으로 서로 다른 형태를 취하지만 의미적으로는 대동소이하다. 즉 중간구문은 총칭적인 비명시적 행위자가 함축되어 있고, 현재시제나 양태 조동사를 사용하여 비사건적인 정태성을 표현한다. 이때 비명시적 행위자는 사건 발생에 큰 영향력이 없기 때문에 어떤 특정 사건을 서술하는 것이 아니라 수동자 주어의 항구적인 속성이나 성향을 묘사하는 데 중점을 둔다.

Ⅲ. 고대 중국어 중간구문의 의미 기능

현대 중국어는 ‘好V’, ‘V起來’와 더불어 ‘能/可’ 등의 조동사와 難易구문이 중간구문의 유형으로 자주 거론된다.¹⁰⁾ 그 중에서 ‘好’, ‘起來’와 결합된 구문은 唐代 이후 중간구문으로 발전하였기 때문에 본고의 논의에서 제외한다.¹¹⁾ 이 밖에 현대 중국어 중간구문 논의에서 자주 거론되는 것은

10) 蔡淑美·張新華(2015:202)는 현대 중국어에서 ‘值得’, ‘耐/經’구문 역시 중간구문의 예시로 들었으나 고대 중국어에서는 ‘值得’구문 자체가 생성이 되지 않았고 ‘得’, ‘足’구문과 연결되어 논의할 수 있다. ‘耐/經’구문은 중간구문으로서 유의미한 출현빈도를 보이지 않아 논의에서 제외하였다.

‘能/可’구문과 ‘難/易’구문이다. 이들은 모두 고대 중국어에서 그 기원을 찾아볼 수 있다. ‘能’, ‘可’는 고대 중국어에서 능원동사로 불리는 조동사에서 발전되었고 ‘難’, ‘易’는 각각 형용사에서 중간구문으로 발전되었다.

일찍이 전통 중국어법학자들을 일부 조동사가 포함된 구문을 피동문의 범주로 간주하였다. 馬建忠(1845~1900)은 라틴 어법의 영향을 받아 쓴 가장 최초의 중국어 문법서인 《馬氏文通》(1898)에서 고대 중국어를 분석 대상으로 삼았는데 ‘爲’, ‘於’, ‘見’, ‘蒙’, ‘受’이외에 ‘可’, ‘足’을 피동을 표현하는 受動字로 제시하였다. 王力(1989/2003:274)는 ‘可’구문에서 주어 가 행위를 일으키는 주체가 아니라 영향을 받는 수동자가 오는 경우 피동 의미를 띄지만 실상 피동문은 아니라고 보았다. 최근 張廷俊(2010:92-93)도 ‘可’, ‘足’뿐만 아니라 ‘能’, ‘得’, ‘克’ 등을 무표지 피동문을 구성하는 요소로 보았다. 이들은 고대 중국어에서 피동문의 범주가 통사 의미적으로 가능의미와 교차되는 것을 인식하였지만 아직 중간구문의 개념에 대한 인식은 부족하였기 때문에 이들 구문의 특성을 제대로 파악하기 힘들었다.

하지만 모든 조동사가 출현하는 구문이 중간구문의 범주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劉利(2000)는 고대 중국어 조동사를 가능류와 의지류로 구분하였는데 의지류 조동사는 ‘可’, ‘能’, ‘克’, ‘足’, ‘得’, ‘獲’ 등을 포함하며 의지류 조동사는 ‘敢’, ‘肯’, ‘欲’, ‘願’이 포함된다. 이 중에서 의지류 조동사는 행위자 주어의 의지 즉 주관성이 강조되므로 중간구문으로 발전될 수 없으며 가능류 조동사만 중간구문과 관련이 있다. 하지만 가능류 동사 역시 모두 중간구문으로 볼 수 없다. 통사 의미적으로 수동자 목적어가 주어 자리에 나타나야 하며 그 속성으로 인한 상태 변화를 표현하는 경우 중간구문으로 간주할 수 있다.

劉利(2000:116)에 따르면 고대 중국어에서 ‘能’은 대부분 유생 자질의

11) 太田辰夫(2003:191)에 따르면 ‘好’는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에서 동사 앞에 부사로 사용하기 시작했다. 위진남북조 시기에 조사로 처음 사용되었다. 張定·丁海燕(2009:32)에 따르면 수동자 목적어가 출현하는 ‘NP非施事+好+V’구문은 당대에 처음 발견되었고 明, 清代에 이르러 완전히 정착하게 되었다.

주어로 가지며 어떤 행위나 할 수 있는 객관적인 능력이 존재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克’역시 ‘能’과 용법상 공통점이 많다. ‘得’의 경우는 呂叔湘(2004:248)에 따르면 ‘可’와 ‘能’의 두가지 뜻을 모두 가지며 ‘能/不能’의 의미를 쓰일 때는 행위자 자신의 능력으로 말하는 것이고 ‘可/不可’로 쓰일 때는 외부의 힘이나 이치의 당연함, 즉 타인의 호오로 인해 사태가 발생하는 것으로 행위자 본인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고 보았다. 李明(2001:4) 역시 ‘能’은 객관 조건의 가능성을 나타내며 행위자의 각도에서 말하는 것이고 ‘可’ 뒤의 동사는 피동의미를 가지며 수동자의 관점에서 말하는 것으로 보았다.

이를 통해 볼 때 고대 중국어에서 ‘能’과 ‘可’는 서로 상보적인 분포를 보이며 행위의 발생 여부가 외부조건에 의한 것인지 내부 요인에 의한 것인지에 의해 구분된다. 때문에 馬建忠(1898)과 王力(1989/2003)은 ‘能’을 피동문과 연계시키지는 않았다. 본고에서도 ‘能’, ‘克’, ‘得’는 행위자 주어의 능력과 의지가 요구되는 문장에 주로 쓰이기 때문에 중간구문의 범주에서 제외시키고 ‘可’, ‘足’의 가능류 조동사만을 분석 대상으로 삼는다. 한편 요진우(2001:365)는 ‘可’, ‘足’ 뿐만 아니라 ‘難’, ‘易’ 역시 피동을 나타낸다고 보았다. ‘難/易’구문은 ‘可/足’구문처럼 단순히 어떤 수동자 주어의 속성으로 인한 사건 발생의 가능 여부를 표현하는 것에서 벗어나 쉽고 어려움과 같이 가능성의 정도를 나타내기 때문에 역시 중간구문의 의미적 특성에 부합한다. 본고에서는 이 두 종류의 구문을 중간구문으로 간주하고 통사 의미적 특성에 대해 세부적으로 고찰해보고자 한다.

1. ‘可/足’ 구문

최리(2000:81-109)에 따르면 ‘可’는 크게 객관성 허가, 사리상 허가, 추론상 허가 의 세 양상 의미로 구분하였다. 李明(2001:18) 역시 조동사 ‘可’를 세 가지 의미로 분류하였는데 하나는 조건 가능으로 이때는 ‘能, 得’와 같은 의미이다. 두번째는 허가를 나타내며 자주 동사와 결합한다.

세 번째는 평가를 나타낸다. 이 중 첫 번째 조건인 객관성 허가 및 조건 가능성은 Palmer(2001:70)의 동적 양상(dynamic modality)에 해당한다. 동적 양상은 행위자가 어떤 행위를 할 수 있는 객관적인 능력이나 잠재력 혹은 의지를 가진 것을 가리킨다. 때문에 유생물이 행위의 주체가 되는 ‘可’구문은 중간구문으로 보기 어렵다.

아래 ‘可’구문은 타동사의 목적어가 주어자리에 위치하고 비명시된 행위 주 논항이 따로 존재하여 중간구문의 통사적 특징에 부합해 보인다. 그러나 사태의 발생이 수동자 주어의 내재적 속성보다는 표면구조에 드러나지 않는 행위자의 의지에 주로 달려 있다.

- (11) 鑿而不捨, 金石可鑿。(《荀子·勸學》) 사
새기는 것을 멈추지 않으면 금과 돌도 새길 수 있다.
- (12) 晉楚之富, 不可及也。(《孟子·公孫丑下》)
진나라와 초나라의 부는 따라잡을 수 없습니다.
- (13) 項氏臣可盡誅耶? (《史記·季布列傳》)
항우의 신하들은 모두 죽일 수 있겠습니까?
- (14) 吾爲公從中起, 天下可圖也。(《史記·淮陰侯列傳》)¹²⁾
내가 그대를 위해 한에서 일어난다면 천하를 가히 도모할 수 있다.

예컨대 예문(11)에서 ‘金石’은 새김을 당하는 대상으로 주어 자리에 위치하지만 새기는 행위의 발생 여부는 금속의 고유한 성질과는 관계없이 숨겨진 행위자의 의지에 달려있다. 예문(12~13)역시 수동자 주어 ‘晉楚之富’, ‘項氏臣’은 아무런 의지를 갖지 않고 비명시적 행위자의 능력에 의해 사건 발생의 가능 여부가 정해진다. 예문(14)는 중간구문의 암묵적 행위자인 ‘吾’가 앞 절에 제시되며 ‘可’ 앞에 수동자 주어 ‘天下’는 나의 행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수동자에 불과하다. 즉 이들 구문은 모두 특정 행위자의 능력으로 인한 사건의 발생 가능성을 기술하며 의미상 목적어가 전

12) 예문(12~14)는 馬建忠(1898/2004:160)에서 인용하였다.

치된 무표지 피동문인 수동자 주어문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수동자의 주어의 내재적 속성을 강조하고 명제 내용을 충칭적으로 서술하는 중간구문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

반면 아래 ‘可’구문은 사리나 추론상의 허가 혹은 화자의 평가가 드러나는 것으로 외부적인 조건이 사태 발생의 중요한 원인이 된다. 이때 숨겨진 행위자의 능력보다는 수동자 주어의 내재적 속성으로 인한 상태 변화를 표현하는 중간구문으로 볼 수 있다.

- (15) 仲可懷也, 父母之言, 亦可畏也。(《鄭風·將仲子》)
그대가 그렇지만 부모의 말씀 또한 두렵지요.
- (16) 父母之年, 不可不知也. 一則以喜, 一則以懼。(《論語·里仁》)
부모의 나이는 모를 수 없다. 한편은 기쁘고 한편은 두렵다.
- (17) 雖小道, 必有可觀者焉。(《論語·子張》)
비록 작은 도라도 반드시 볼만한 것이 있다.
- (18) 九功之德皆可歌也, 謂之《九歌》。(《左傳·文公》)
구공의 덕은 모두 칭송할 만하니 그것을 九歌라고 부른다.

예문(15)는 심리적 상태 변화를 겪는 행위자가 문맥에 함축되어 있으며 수동자 주어인 ‘父母之言’이 원인자로 제공된다. 효가 숭상되는 전통 시대에 부모의 말은 모든 자식에게 두려움을 느낄 만한 대상으로 충칭성을 갖는다. 예문(16)역시 효도에 대한 당위성이 강조되는 시대에 대부분의 자식이라면 도리상 부모의 나이를 모를 수 없다. 예문(17)은 수동자 주어 ‘道’에 내재된 속성으로 인한 충칭적 행위자의 심리 변화의 가능성을 제시한다. 이들 구문은 대개 감정이나 지각, 인지 혹은 판단과 관련된 동사와 함께 출현하며 유생성 자질을 가진 암묵적 행위자를 통해서만 확인이 된다. 따라서 수동자 주어의 속성을 통해 정태 변화의 가능성을 기술하는 중간구문에 잘 부합한다.

‘可’와 달리 ‘足’구문은 애초에 명제 내용에 대한 개연성 등 화자의 판단이 주요 의미기능이다. Palmer(2001:25)의 인식 양상(epistemic modality)

에 해당되는 것으로 이때 판단의 근거가 되는 외부적 조건은 수동자 주어의 내재적 속성이 된다.

(19) 命必足畏, 賞必足利。 (《墨子·號令》)

명령은 반드시 두려울 만해야 하고, 상은 반드시 이로워야 한다.

(20) 古者丈夫不耕, 草木之實足食也; 婦人不織, 禽獸之皮足衣也。 (《韓非子·五蠹》)

옛날에는 장부가 밭갈지 않아도 초목의 열매로 족히 먹을만 했고 부인이 옷을 만들지 않아도 짐승의 가죽이 입을 만했다.

(21) “今言王若易然, 則文王不足法與?” (《孟子·公孫丑上》)

지금 왕노릇이 쉬운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문왕은 본받기 부족합니까?

(22) 孟子曰: “人不足與適也, 政不足間也。 (《孟子·離婁上》)

맹자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등용한 사람을 일일이 지적할 수 없고, 정사는 비난할 수 없다.”

예문(19)처럼 ‘足’앞에 ‘必’과 같은 당위성을 나타내는 부사가 함께 쓰여 이들 구문이 사건을 기술하는 것이 아니라 ‘命’과 ‘賞’의 속성을 강조하는 상태문임을 드러낸다. 예문(20)에서도 수동자 주어인 ‘草木之實’과 ‘禽獸之皮’은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것으로 모든 사람이 먹고 입는데 부족함이 없는 주요 원인이 된다. 예문(21)에서 유생적 자질을 가진 수동자 주어 ‘文王’이 가진 어떤 자질이 본받을 만한 상태를 일으키는 요소가 된다. 이들 구문은 모두 문장 안에 사태와 관련되어 감정이나 행위를 일으키는 숨겨진 행위자가 전제된다. 이처럼 수동자 주어의 속성으로 어떤 상태 변화를 일으킬 조건을 충족한다는 점에서 중간구문에 부합한다.

주의해야할 점은 ‘可’와 ‘可以’, ‘足’과 ‘足以’의 분화이다. 王力(1989/2003:243)은 ‘可’ 뒤에 동사는 피동 의미를 ‘可以’ 뒤의 동사는 능동 의미를 갖는다고 하였다. 李明(2001:17)은 ‘足’의 주어는 모두 수동자이지만 ‘足以’의 주어는 도구, 방식, 재료, 행위자 등이 출현하는 능동으로 보았다. 즉 ‘可’와 ‘足’의 주어는 행위에 영향을 받는 수동자 목적어가 출현

하므로 피동문과 연계시키고 ‘可以’와 ‘足以’의 주어는 동작 행위를 일으키는 공구, 방식, 의거, 원인 등으로 능동문으로 보아 서로 상보적인 분포를 보인다는 것이다.

- (23) 它山之石, 可以攻玉。(《小雅·鶴鳴》)
 다른 산의 돌도 옥을 다듬을 수 있다.
- (24) 詩, 可以興, 可以觀, 可以群, 可以怨。(《論語·陽貨》)
 시는 감흥을 일으키고 올바르게 볼 수 있게 하고 남과 어울리게 하고 원망할 수 있게 한다.
- (25) 臧僖伯諫曰:“凡物不足以講大事, 其材不足以備器用, 則君不舉焉。”
 (《左傳·隱公5年》)
 장희백이 간하면서 말하길 무릇 물건이 큰 일을 강구하기에 부족하거나 그 재료가 기물을 준비하기에 부족하다면 군주께서는 몸소 행동하지 마십시오.
- (26) 故聖人衣足以犯寒, 食足以充虛, 則不憂矣。(《韓非子·解老》)
 고로 성인의 옷은 추위를 막을 수 있고 음식은 허한 것을 채울 수 있어 걱정이 없다.

‘可以’와 ‘足以’에서 개사 ‘以’의 목적어로 전치된 다양한 도구성 논항은 행위자와 공유하는 의미가 있다. 도구 역시 의미상 스스로 힘을 부여받아 행위를 일으킬 수 있는 주체에 가깝다. 그러나 도구는 필연적으로 행위자에 의해 조종되므로 이들 구문은 유생 자질을 가진 행위자 주어문과 같은 완전히 동일한 능동의미를 갖지는 않는다. 예컨대 예문(23)에서 ‘它山之石’은 나의 옥을 다듬을 수 있는 도구이자 원인자로 옥을 다듬는 주체인 행위자가 암묵적으로 존재한다.

영어와 한국어 및 현대 중국어는 별다른 형태적 표지 없이 중간구문의 주어가 수동자 이외에 도구나 처소와 같은 다양한 의미를 갖는 대상이 출현할 수 있다.¹³⁾ 이를 통해 볼 때 고대 중국어 ‘可/足’구문은 주로 수동자

13) 何文忠(2005:11)에 따르면 영어의 중간구문에서 동작 동사는 주로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수동자 주어와 결합하는 경향이 있다고 보았으나 도구도 출현할

의 내재적 속성으로 인한 상태 변화의 가능성을 주로 표현하고 ‘可以’와 ‘足以’구문은 수동자를 제외한 도구 등의 내재적 속성을 강조하는 중간구문의 하위부류로 볼 수 있다.

2. ‘難/易’ 구문

영어의 중간구문에서 서술어 뒤에 ‘쉽게’, ‘잘’과 같은 부사어를 동반하는 것처럼 고대 중국어의 경우 동사 앞에 형용사 ‘難’, ‘易’와 결합하여 중간구문을 구성한다. ‘難/易’구문은 영어의 ‘tough’ 구문과 비교될 수 있다. 영어의 ‘tough’ 구문은 진주어 구문에서 동사 혹은 전치사의 목적어의 경우 주어 자리로 상승이 가능하며 서로 변환될 수 있다.¹⁴⁾ 이는 ‘難/易’구문에도 적용할 수 있다. ‘難/易’는 원래 행위자 주어와 결합하는 경우가 적으며 서술성 명사구가 주어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¹⁵⁾ 이는 다시 중간구문과의 연계성을 찾을 수 있는데 예컨대 ‘人之言曰：爲君難，爲臣不易.’(論語·子路)은 ‘君難爲，臣不易爲’와 같은 중간구문으로 변환 가능하다.

蔡淑美·張新華(2015:205)는 현대 중국어에서 난이문(難易句)은 주어

수 있다. 熊仲儒(2011:66)역시 중국어의 ‘好+V’ 형식에는 도구, 재료, 결과, 장소와 같은 다양한 의미 특성의 피행위자 주어가 나타날 수 있다고 보았다. 백정화(2019:105)에 따르면 한국어 중간구문 역시 대상자 목적어 뿐만 아니라 행위의 도구나 처소 등도 가능하다. 또한 대상자 목적어는 행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무정물뿐만 아니라 유정명사도 가능하다. 이는 영어도 마찬가지다.

- | | |
|-------------------------|-----------------------|
| a. This pen write well. | This oven cooks well. |
| b. 這條路好走。 | 這筆不好寫。 |
| c. 그 덧에도 범이 잡히니? | 그 함정에는 적들이 잘 잡힌다. |
| d. 그 아이는 잘 잡힌다. | John shocks easily. |

14) 예컨대 a. This apple is easy to digest. b. To digest this apple is easy. c. It is easy to digest this apple. d. This apple digests easily 간의 변환 관계를 볼 수 있다.

15) 任荷(2021:296)에 따르면 ‘難’앞에 행위의 주체가 나타나는 경우는 주로 ‘~는 ~가 어렵다고 여기다’와 같은 의동용법으로 해석된다.

자신의 성질로 인해 동작이 쉽게 혹은 어렵게 이루어지는 것을 표현하는 것으로 행위의 발생 가능성만 나타내는 ‘能/可’구문과 달리 ‘這件事很難辦成’처럼 결과보어와 같은 상 성분과도 결합할 수 있다고 보았다. 하지만 고대 중국어에서 아직 결과보어가 아직 발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둘 사이에 서술어 형태의 차이를 발견하기 어렵다. 또한 난이문(難易句)이 ‘能/可’구문보다 사건의 정밀도가 더 높다고 보았다. 李炎燕(2021:87~88)에 따르면 ‘難/易’구문의 주어는 초기 발전과정에서 수동자가 오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이를 통해 볼 때 ‘能/可’구문보다 더 중간구문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고대 중국어에서 ‘難/易’구문 역시 행위자 논항이 비명시적으로 존재하며 수동자 주어의 속성으로 인한 사태 발생 가능성의 쉽고 어려운 정도를 나타낸다.

- (27) 唯女子與小人爲難養也，近之則不孫，遠之則怨。(《論語·陽貨》)
오직 여자와 소인은 기르기 어렵다. 가까이하면 불손하고 멀어지면 원망한다.
- (28) 夫道，若大路然，豈難知哉？(《孟子·告子下》)
무릇 도라는 것은 대로와 같으니 어찌 알기가 어렵겠는가?
- (29) 夫大國難測也，懼有伏焉。(《左傳·莊公10年》)
무릇 큰 나라는 예측하기 어렵다. 그곳에 복병이 있을까 두렵다.
- (30) 蔓，難圖也。(《左傳·隱公元年》)
방중함은 함께 도모하기 어렵다.

예문(27)은 ‘女子’와 ‘小人’이 가진 속성으로 인해 서술어가 가리키는 행위가 일어나기 어려움을 표현한다. 이때 준계사인 ‘爲’가 결합하여 상태성을 강화한다. 예문(28~29)처럼 ‘夫’와 같은 문두 조사를 사용하여 수동자 주어가 가진 내재적 속성이 총칭적이며 보편성을 갖추었다는 화자의 판단을 드러낸다. 이들 구문 역시 비사건적인 정태성을 갖고 총칭성을 강조하면서 일반적인 진실이나 사실을 묘사하는 중간구문에 잘 부합한다.

아래는 ‘易’와 결합한 중간구문으로 유생성 자질을 갖는 수동자 주어
가 자주 출현한다.

- (31) 三年學，不至於殺，不易得也。(《論語·秦伯》)
삼년을 배우고서 직업에 뜻이 없는 자를 찾기가 쉽지 않다.
- (32) 子曰：“上好禮，則民易使也。”(《論語·子路》)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윗사람이 예를 좋아하면 백성은 쉽게 부릴 수 있다.
- (33) 饑者易爲食，渴者易爲飲。(《孟子·公孫丑上》)
배고픈 자는 먹이기 쉽고 목마른 자는 마시게 하는 것이 쉽다.
- (34) 人固不易知，知人亦不易。(《史記·范雎蔡澤列傳》)
사람은 본래 알기 어렵고 사람을 아는 것 역시 쉽지 않다.

예문(31)은 특정 조건을 가진 유생명사가 수동자 주어로 출현하기 때문에 비명시적 행위자가 어떤 사태를 발생시키기 어렵다는 점을 표현한다. 예문(32) 역시 앞 절에서 제시된 외부적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수동자 주어인 ‘民’이 쉽게 부림을 당함을 표현한다. 예문(33)은 수동자 주어인 ‘饑者’와 ‘渴者’이 가진 특수한 상태로 인해 행위의 발생이 쉬움을 묘사하고 있다. 예문(34) 역시 수동자 주어인 ‘人’의 원천적인 속성으로 인해 사태 발생이 쉽지 않음을 표현한다. 이때 서술어가 가리키는 행위는 모두 암묵적으로 존재하는 총칭적 행위자에 의해 이루어진다.

한편 ‘可以’, ‘足以’와 대비하여 ‘難以’, ‘易以’의 예문은 상대적으로 출현 빈도가 매우 낮다.

- (35) 聖人之道，去智與巧，智巧不去，難以爲常。(《韓非子·揚權》)
성인의 도는 지혜와 기교를 버리는 데 있다. 지혜와 기교를 버리지 못하면 상도라고 할 수 없다.
- (36) 曾子曰：“堂堂乎張也，難與並爲仁矣。”(《論語·子張》)
증자가 말했다. “자장의 외모가 당당하구나! 하지만 그와 더불어 함께 인을 실천하기는 어렵구나.”

(37) 夫水近於人而溺人，德易狎而難親也，易以溺人；口費而煩，易出難悔，易以溺人。(《禮記·緇衣》)

무릇 물은 사람에게 가까우면서도 사람을 빠지게 한다. 그 덕성은 쉽게 빠지기는 쉬우나 친하기는 어려워 사람을 물에 빠지게 하기 쉽다. 입은 허비되고 어지러워 말을 뱉어내기는 쉬워도 뉘우치기는 어렵기에 사람을 쉽게 빠지게 한다.

(38) 循流而下，易以至；倍風而馳，易以遠。(《說苑·談叢》)

물길 따라 내려가면 쉽게 목적지에 이르며 바람을 등에 지고 내달리면 쉽게 멀리 간다.

예문(35~36)은 ‘難’ 뒤에 개사 ‘以’나 ‘與’가 결합하여 그 목적어 성분이 도구나 동반자 주어로 전치되었다. 예문(38)은 ‘以’의 목적어가 앞 절의 서술성 구가 되는 경우로 볼 수 있다. 이처럼 ‘難/易’구문 역시 ‘可/足’구문과 마찬가지로 중간구문의 주어가 수동자 이외에 도구나 원인, 행위자 등이 오는 경우를 구별할 수 있다. 다만 ‘可以’와 ‘足以’구문보다 출현 빈도가 낮은 것은 애초에 ‘難/易’구문의 주어는 수동자가 주로 출현하여 중간구문으로 쓰이던 역사가 오래되었고 때문에 수동자 이외에 비행위자 논항이 오는 것이 더 자연스러웠을 것으로 보인다.

IV. 나오는 말

본고는 범언어적으로 중간구문에 대한 기존 논의를 바탕으로 고대 중국어 중간구문의 의미 기능에 대해 고찰하였다. 중간구문은 중동태에 속하는 특수한 구문의 하나로 타동사의 목적어가 주어자리에 출현하여 피동문에 가깝지만 능동문의 동사 형태를 갖는 것으로 암묵적 행위자 논항의 존재, 비사건성, 현재시제의 선택, 가능성 의미와 공기되는 특성을 가지며 수동자 주어의 내재적 속성으로 인한 상태성을 표현한다. 고대 중국어에서는 ‘可/足’와 ‘難/易’구문이 능동문과 피동문 사이에 의미 범주적으로 교차되

는 지점이 있지만 기존 학자들은 이들 구문의 특수성을 간과한 측면이 있다. 본고에서는 이들 구문이 수동자 주어의 속성으로 인한 상태 변화의 가능성 및 가능성의 정도를 나타내는 경우로 중간구문에 부합한다고 보고 그 의미 기능에 대해 분석하였다.

‘可’구문은 문두에 수동자 주어가 출현하지만 상태 변화의 가능성이 이들의 속성이 아니라 암목적 행위자의 능력에 영향을 받는 경우가 있다. 이는 기존에 무표지 피동문으로 불리는 경우로 중간구문으로 보기 어렵다. 그러나 ‘可’구문 역시 감정이나 심리 동사와 결합하는 경우 중간구문의 특징을 잘 드러낸다. ‘足’구문 역시 수동자 주어의 속성이 상태 변화를 일으킬 개연성이 충분하다는 화자의 판단을 진술하는 것으로 비사건적 정태성을 드러내는 중간구문에 잘 부합한다. ‘難/易’구문은 수동자 주어의 속성이 사태 변화를 일으키기 쉬움 혹은 어려움을 나타내며 영어의 ‘tough’ 구문과 비교될 수 있다. ‘可/足’과 ‘難/易’구문은 각각 뒤에 개사 ‘以’와 결합하여 그 목적어가 주어로 전치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역시 수동자 이외에 도구를 비롯한 비행위자 논항의 속성을 묘사하는 것으로 중간구문의 하위 부류로 볼 수 있다.

<참고문헌>

- 김윤정, <현대중국어 결과보어의 중간문 기제로서의 가능성 탐색>, 《언어 과학연구》 29, 2004.
- 김혜경, <현대중국어 중간문(Middle construction)에 관한 고찰>, 《중국어 교육과 연구》, 2011.
- 남수경, 《한국어 피동문 연구》, 서울: 월인, 2011.
- 박상수, <중간구문의 통사-의미 구조>, 《현대문법연구》 7, 1996.
- 백정화, 《한국어 피동문의 유형론적 연구》, 서울: 한국문화사, 2019.

- 양류, 〈현대 중국어 조동사 ‘好’의 기능 분석-중간 범주와 타동사의 시각으로〉, 《중국언어연구》 97집, 2021.
- 양류, 〈중국어 ‘NP+好+VP’ 중간 구문과 한국어 대응 표현 대조 연구-인지 언어학적 관점을 바탕으로〉, 《중어중문학》 90집, 2022.
- 연재훈, 《한국어 구문 유형론》, 파주: 태학사, 2011.
- 요진우, 《한문문법의 분석적이해》, 대구: 계명대학교출판사, 2001.
- 이지현, 〈현대 중국어 ‘NPp+V起來+AP’형식 분석-중간태 구문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중국어문학논집》 52호, 2008.
- 이지현, 〈현대 중국어 중간 구문의 인지 의미 분석-好+V형식을 중심으로〉, 《중국어문학지》 36집, 2011.
- 이지현, 〈상황 유형에 근거한 중국어의 중간 범주 모색-인구어와의 대조를 중심으로〉, 《중국언어연구》 41집, 2012.
- 장엽·김기석, 〈언어유형론적 시각에서 본 한국어 “NP+AP+V” 중간 구문과 중국어 “NP+V起來+AP” 중간 구문〉, 《중국인문과학》 72집, 2019.
- 전부미, 〈중간구문의 구조와 성향성〉, 《영어학》 13:4, 2013.
- 전부미, 〈Tough 구문의 책임의미와 성향귀속〉, 《언어과학》 19:4, 2012.
- 홍소영·최규발, 〈현대 중국어 ‘NP+好+V’ 구문의 의미 분석〉, 《중국어문논총》 86집, 2018.
- 蔡淑美·張新華, 〈類型學視野下的中動範疇和漢語中動句式群〉, 《世界漢語教學》 第2期, 2015.
- 曹宏, 〈中動句式對動詞形容詞的選擇限制及其理據〉, 《語言科學》 第1期, 2004.
- 曹宏, 〈論中動句的句法構造特點〉, 《世界漢語教學》 第3期, 2004.
- 董成如, 〈也談漢語中動句的句法語義特徵及相關問題〉, 《當代語言學》 第4期, 2021.
- 丁還燕·張定, 〈漢語形源助動詞形成的句法機制〉, 《古漢語研究》 第3期, 2012.

- 古川裕, 〈現代漢語의 “中動語態句式(middle construction)”-語態變換의 句法實現和詞法實現〉, 《漢語學報》 第2期, 2005.
- 胡麗珍·雷冬平, 〈“NP+好+V/A”의 多義同構性及其承繼理據의 歷時考察〉, 《語言科學》 第5期, 2013.
- 胡旭輝, 〈跨語言視角下的漢語中動句研究〉, 《當代語言學》 第1期, 2019.
- 何文忠, 〈中動結構의 界定〉, 《外語教學》 第4期, 2005.
- 何文忠, 〈中動構句選擇限制의 認知闡釋〉, 《外語研究》 第1期, 2007.
- 何元建, 〈現代漢語中間句의 句法結構〉, 《漢語學習》 第1期, 2010.
- 李明, 《漢語助動詞의 歷史演變研究》, 北京大學博士學位論文, 2001.
- 李炎燕, 〈漢語中動句式의 歷時演變解析〉, 《長沙大學學報》 第6期, 2021.
- 劉利, 《先秦漢語助動詞研究》, 北京: 北京師範大學出版社, 2000.
- 呂叔湘, 《中國文法要略》, 北京: 商務印書館, 1990/2004.
- 馬建忠, 《馬氏文通》, 北京: 商務印書館, 1898.
- 齊滬揚·曾傳祿, 〈“V起來”의 語義分化及相關問題〉, 《漢語學習》 第2期, 2009.
- 任荷, 〈先秦漢語“難”字句의 句法結構及其來源〉, 《中國語文》 第3期, 2021.
- 太田辰夫, 《中國語歷史文法》, 北京: 北京大學出版社, 2003.
- 王力, 《漢語語法史》, 北京: 商務印書館, 1989/2003.
- 熊仲儒, “NP+好VP”의 句法分析, 《當代語言學》 第1期, 2011.
- 熊仲儒, “V-起來AP”의 結構分析, 《漢語學習》 第2期, 2022.
- 徐盛桓, 〈語義數量特徵與英語中動結構〉, 《外語教學與研究》 第6期, 2002.
- 張定·丁海燕, 〈助動詞“好”의 語法化及相關詞彙化現象〉, 《語言教學與研究》 第5期, 2009.
- 張廷俊, 《漢語被動式歷史研究》, 北京: 中國社會科學出版社, 2010.
- 趙成新·舒琳, 〈漢英“難易”類中動句對比分析及漢語習得研究〉, 《外文研究》 第1期, 2023.
- Fagan, S. *The Syntax and Semantics of Middle Construction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 1992.
- Keyser. S. and T. Roeper. On the Middle and Ergative Construction in

English. *Linguistic Inquiry* 15, 1984.

Palmer, F. R. *Mood and Modalit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2001.

Suzanne Kemmer(백미현 역), 《중간태(The Middle Voice)》, 서울: 한국문화사, 1993/2003.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the semantic characteristics of the middle construction in ancient Chinese based on the existing discussion on the middle construction. The middle construction is one of special structures that has the verb form of an active sentence, even though it is close to passive sentence, because the object of a transitive verb is placed on the position of the subject. The middle construction has the characteristics of being concurrent with the implicit agent, non-eventive state, present tense, the use of adverb words, and the meaning of possibility and expresses the change of a state, due to the intrinsic nature of a passive subject. While, there was a point that is intersected categorically between the active sentence and passive sentence in view of the construction of ‘可/足’ and ‘難/易’ in ancient Chinese, it is an issue that the specificity of these structures is overlooked. Therefore, this study investigates the semantics of the middle construction in ancient Chinese with ‘可/足’ and ‘難/易’ in a way that the construction of ‘可/足’ and ‘難/易’ corresponds to the middle construction that shows the possibility of a state change and the possibility degree due to the attributes of passive subject.

Key Words : 중간구문(Middle construction), 비명시적 행위자(Implicit agent),
비사건성(Non-eventiveness), ‘可/足’ 구문(The construction of
ke/zu), ‘難/易’ 구문(The construction of nan/yi)

